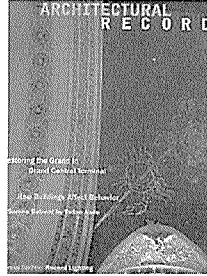


Architectural Record
 The Architectural Review
 Domus
 Architecture
 a+u
 建築文化

Architectural Record

1999년 2월호

이번호는 진보된 건축관련 소프트웨어와 그로 인한 디자인과 정의 변화와 90년 가까이 되었던 뉴욕



Grand Central Terminal의 개보수 과정을 소개하고 있으며, 근작으로는 자연과의 교감과 명상의 공간을 추구하는 안도 타다오의 TOTO Seminar House를 다루었다.

■ 건축관련 소프트웨어의 진보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건축가의 디자인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그 중 가장 커다란 변화는 CAD시스템의 그래픽 재현에서 진보한 Intelligent Objects의 데이터 구축에 있다.

Intelligent Object는 벽, 창문, 지붕 등에 복합적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것으로서 시공도, 일정표, 시방서 작성 등이 위의 정보로부터 자동적으로 작성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러 단계의 도면 작성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디자인 결정과정에 좀 더 많은 시간의 투자가 가능해졌다.

그 외에도 건물의 전 수명에 걸쳐 건물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로서, 건축가, 시공자, 컨설턴트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도면, 구조, 설비적 분석, 시방서, 견적서 등의 데이터가 입력되어서 이 정보가 사용자의 변화하는 요구에 의해 응용되는 것이 개발 적용되고 있다.

■ 뉴욕 Grand Central Terminal의 개보수

1913년 Beaux-Arts 양식의 Grand Central Terminal이 처음 문을 연 이래

로 누수, 오염된 표면, 입주 상인들의 저저분한 사용 등에 의해 건물은 개보수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Beyer Blinder Belle(BBB)이 이 작업을 맡게 되었다. 기계 설비시스템을 현대화하였으며, 특히 터미널의 환승시스템을 개선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주 진입홀에서 이루어졌는데, 거대한 코닥 광고판이 제거되고 동측면이 개방되어 진입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게 되었다.

BBB의 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승객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전의 변경안을 다시 변경한 것인데, 1927년 램프 위까지 티켓오피스를 확장시켰던 것을 수정하여, 좁고 어두운 터널이었던 것을 건물의 가장 스펙터클한 전망을 제공하는 통로로 바꿔놓았다. 또한 이전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던 발코니부분에 고급 레스토랑을 두어 진입홀의 주된 전망을 제공하는 이 부분을 재생시켰다.

■ 근작소개

▶ 안도 타다오의 일본 Hyogo, TOTO Seminar House



안도 타다오의 일본 Hyogo, TOTO Seminar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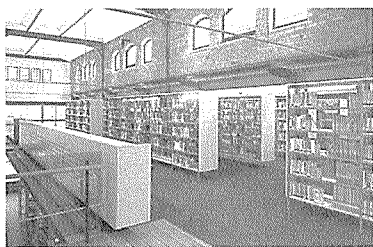
TOTO사의 휴양시설 및 연수시설인 이 건물은 기존의 리조트 시설과는 다소 다른 개념으로 계획되었다. 안도는 편리지향과 일상 삶의 수용은 우리로부터 정신적 풍요를 제거한다고 주장해왔다. 건축주는 이러한 그에게 디자인과 사이트의 선정까지 맡겼고, Awaji 섬의 동쪽해안에 명상적이고 조용한 건물이 지어지게 되었다. 안도는 그의 통상적인 재료사용과 디테일처리를 적용하였으며, 이 건물이 사이트를 접하는 방식은 이전의 그의 초기안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방문자는 땅과 하늘이 만나는 접점으로

서 이 장소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순히 경관이 프레임에 잡히게 조작하는 데서 나아가 방문객이 미풍과 햇살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연을 건물안으로 초대하고 있다.

이 밖에 ▶Eric Owen Moss의 캘리포니아 Trivida 주택을 소개하였다.

■ **건물유형연구 - 산업용건물의 재생**
 많은 50년대 60년대 건물들의 운명이 철거될지 그대로 보존될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 독창적으로 재생된 네개의 산업용건물을 소개하였다.

▶Lamott Architekten BDA에 의해 19세기 도살장 건물이 Landau 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Hagy Belzeberg Architects에 의해 LA, 1930년대 창고 건물이 개조된 레스토랑은 창고의 목재 트러스가 역동적 형태를 만들어내었다. ▶코네티컷주의 기념비적 형태의 콘크리트 물탱크는 건축가인 Peter de Brettville의 집으로 변형되었으며, 마지막으로 ▶Dirrix van Wylick의 네델란드 Eindhoven 전구 생산공장은 디자인 학교, 음악당, 카페, 전시장, 도서관의 문화복합시설로 재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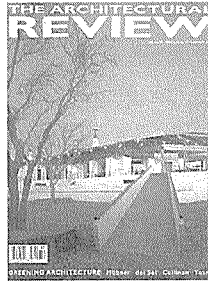


Landau 도서관

The Architectural Review

1999년 2월

이번호는 환경건축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환경에 대한 대응을 독창적으로 보여준 원시림위의 Walkway와 사막에 위치한 호텔, 그리고 고층 오피스 타워에 식재된 스크린을 부착하여 수직 정원을 만들어낸 안을 소개하였다. 인테리어 디자인으로는 가는 기둥과 실크스크린된 유리벽에 의해 추상화된 숲의 분위기를 만들어낸 공원에 위치한 카페를 다루었다.



■ Design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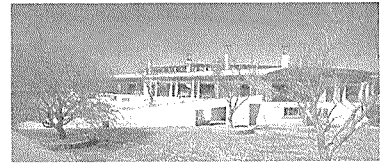
호주 서부에 위치한 Valley of the Granite 원시림의 조망을 제공하는 Walkway는 부식토의 손실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땅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고 숲 전체를 돌아볼 수 있도록, 나무 위로 Walkway가 조성되었으며 목재의 방파제는 Walkway를 지지하는 6개의 다리 트러스와 이어져서 수목의 지붕 아래로 뱀처럼 연결되었다. 철제망의 바닥 판은 방문자로 하여금 밑을 내려다 볼 수 있게 하였으며 구조의 경량과 투명함을 획득하였다.

■ 기획특집 - 환경건축

인류가 생태 위기에 대처해야하는 현 시점에서 진보된 기술과 전통으로부터의 교훈, 특히 자연환경에 대한 대처와 결합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1970년대 중반 에너지 위기가 일어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건축역사에 걸쳐 계속 진행되어 온 것으로서, Arts and Crafts 운동의 생활 기능적 경작과 Ebenezer

Howard의 Garden Cities, Geddes와 Mumford의 지역 설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유기적 건축 모두 그것의 예가 될 수 있으며 넓은 환경건축의 콘텍스트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German del Sol의 칠레 San Pedro Atacama 호텔



German del Sol의 칠레 San Pedro Atacama 호텔

칠레 북쪽 Atacama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한 지역중의 하나이다. 강한 빛의 제어는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지붕선은 베란다 공간까지 연장되어 그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붕의 슬릿은 빛의 눈부심 방지역할을 한다. 지붕은 곡면의 윗 부분과 평탄한 아래 부분으로 구성되며 두 층 사이로 빛과 환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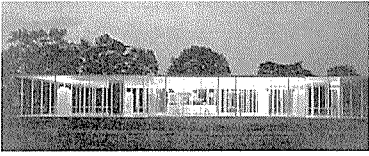
▶Enrique Browne의 칠레, 산티아고 사무소 건물

식재된 스크린이 건물 전면에 부착되어 수직 정원을 이루고 있는 이 건물은 에너지 절감의 효과도 얻고 있다. 서쪽에 면하고 있는 평면의 긴면은 일사에 의해 눈부심이 있었을 뿐 아니라 과열 작용이 있었는데, 식재된 격자 스크린에 의해 이러한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해결되었다.

그 밖에 ▶Peter Hubner의 독일 Cologne 학교 ▶Edward Cullinan Architects의 스코틀랜드 Archaeolink 선사 박물관 ▶Edward Cullinan Architects의 영국 Cornwall 재생에너지 센터 ▶T. R. Hamzah & Yeang의 싱가포르 Exhibition Tower ▶Hajime Yatsuka의 일본 Nagaoka 폴리 ▶Sauerbruch Hutton Architects의 뎀사우 환경청 ▶Troppo Architects의 호주 Fannie bay 레스토랑 ▶Mario Cucinella Architects의 이태리 Recanati 사무소 건물 등이 환경건축의 측면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졌다.

■ 인테리어 디자인

▶ Kazuyo Sejima의 도쿄근처 Koga, Park Ca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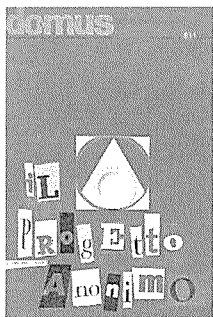
Kazuyo Sejima의 도쿄근처 Koga, Park Cafe

이 카페는 이바라키현의 공립공원의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곳에 위치하며 완만한 경사면에 긴방향으로 놓여있다. 건축가는 극도로 추상적인 형태를 놓음으로써, 조심스럽고 복합적으로 사이트에 대응하고 있다. 카페는, 따뜻한 날에 문을 열 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로 이루어진 유리벽면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세면이 나무널이 깔린 테라스에 면하고 있다. 녹색으로 실크 스크린된 유리면과 그것에 의해 반사된 수직 부재는 무수히 많은 기둥들로 비쳐지는데, 이것은 추상적인 숲의 효과와 함께 건축가가 디자인한 곤충모양 가구가 더해져서 다소 초현실주의적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있다. 이 밖에 ▶ Munkenbeck & Marshall의 Wiltshire, New Art Center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소개되었다.

Domus

1999년 2월

이번 호에서는 디자이너가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디자인을 주제로, 일반화되어 있으면서도 최적의 기



능성 및 조형성을 달성한 건축 및 일

반 산업 디자인 계의 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아울러 최근 작품들로 Rem Koolhaas의 보르도 주택, Enric Miralles와 Benedetta Tagliabue의 조형물 Domus Totem 2가 소개되어 있다.

■ 익명의 건축

익명성은 주거 건축에 있어 두 가지 측면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일상의 모든 요소들이 생활의 즐거움을 주고 그것이 건축에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꾸미지 않은 오두막의 의도하지 않은 단순함이 주거에 있어서 오히려 그 거주감을 증진시켜 줄 수 있다는 점이다. Tuscany 지방의 헛간은 끝없이 이어지는 언덕에 갑자기 솟은 프레임과 지붕으로 나타난다. 건축적 의도는 별로 보이지 않지만 고대 신전의 우아함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헛간은 텍사스 Marfa의 버려진 군용건물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은 Donald Judd의 작품개념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기술도 필요로 하지 않은 채 공간에 놓인 물체와 그 공간 자체는 건축을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오스트리아 St Martin Walter Pichler의 조각을 위한 집

조각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또한 그것을 채운다. 이것은 그의 예술적 컨셉이며, 따라서 조각들은 그것을 위한 방과 집을 필요로 한다. 기본적인 매체에 집중하여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높은 경지의 장인 기술로 익명성에 대한 기념물인 집들을 만들어내었다.

▶ 그 외에 아일랜드 Skibbereen에 위치한 Phillip Gumuchdjian의 Houseboat "The Think Tank", Luc Deleu의 네덜란드 Poortugaal 주택, Pietro Derossi의 프랑스 Turin에 있는 Corso Francia 집합주거가 게재되어 있다. 일반 디자인 부문에서는 종이 클립, 낚시 고리, 빨래 집게 등 일상 용품 속에서 발견되는 익명의 명발명품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저명한 디자이너들의 베스트 셀렉션도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결코 미적인 측면을 의도적으

로 강조하지는 않지만 합리성에 근거한 결과적인 형태들은 언제나 간결한 아름다움을 전달한다.

■ 근작 소개

▶ Rem Koolhaas/OMA의 프랑스 보르도 Floriac 주택

최근 다른 잡지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있지만 이 잡지에서는 저명한 건축 이론가 Beatriz Colomina의 방문기를 다루고 있다. 장애자인 건축주를 위한 3m x 3.5m 넓이의 대형 엘리베이터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 주택은 입구 및 부엌 등이 위치한 1층, 침실들이 위치한 3층, 그리고 그 사이의 '비어있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이면서도 세 개의 Void에 의해 각 공간들이 나뉘어져 각 공간의 독자성을 도모하는 등 도시적인 속성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다. 구조적으로는 맨 위층의 볼룸을 말굽보가 아래서, 중공 콘크리트 기둥과 이에 연결된 H형강이 위에서 지탱(무게 중심은 H형강의 한쪽 끝에 추를 매달았으므로 맞추어 주고 있다)해주는 방법을 취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위층 볼룸은 바닥이 아닌 벽이 주요 구조재로서 최소한의 개구부만 낼 수가 있었는데, 이에 떨어진 수많은 원형창들은 아이, 어른, 장애자 등 다양한 시선들에 맞추어 그 위치가 결정된 것으로 르 꼬르뷔제가 사람의 눈높이를 175cm로 일반화시켰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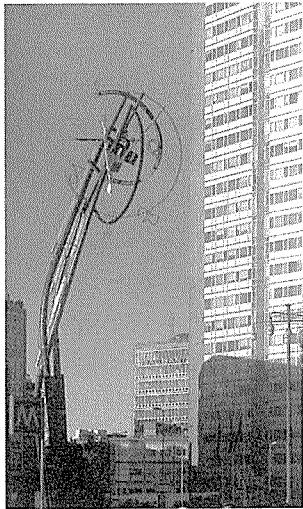


Rem Koolhaas/OMA의 프랑스 보르도 Floriac 주택

▶ Domus Totem 2

97년 Ron Arad가 의자를 쌓아 만든 Domus Totem에 이어 Domus Totem 2는 건축가 Enric Miralles와 Benedetta Tagliabue에 의해 제작되었다. Domus지의 70주년 기념으로 세

진 이 기념 조형물은 Domus 독자들에게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공동체라는 인식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대중에게 이 잡지가 다루는 대상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밀라노 중앙역 근처 광장에 세워진 Domus Totem 2는 건축적 금속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개념의 시간 읽는 방식을 차용한 시계 기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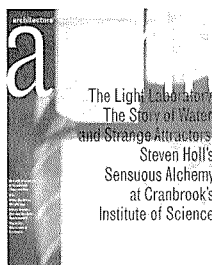


Domus Totem 2

Architecture

1999년 3월호

이번호는 타 이 폴로지와 디테일의 측면에서 기존의 Eliel Saarinen이 설계한 Cranbrook 과학



관과 대화하면서 그 연결동선에 혼돈이론을 적용시킨 Steven Holl의 Cranbrook 과학관 증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Ben van Berkle의 대비되는 공간이 교차로 연속되면서 띠를 이루는 뫼비우스 주택을

다루었다. 또한 사파리와 온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강 위에 떠있는 리조트 건물을 소개하였다.

■ 근작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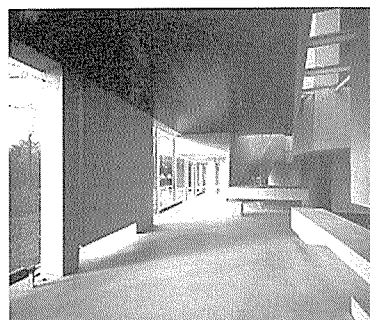
▶Steven Holl의 미시간 Cranbrook 과학관 증축



Steven Holl의 미시간 Cranbrook 과학관 증축

미시간에 있는 Cranbrook 교육센터는 핀란드 건축가인 Eliel Saarinen이 1925년에서 1950년에 걸쳐 디자인한 건물들로 이루어졌다. 이 캠퍼스에 새로운 건물을 부가하게 된 Steven Holl은 혼돈이론, 즉 날씨나 역사처럼 전혀 반복되지 않으면서도 패턴을 형성하는 시스템에 기초하는 이론을 Saarinen의 과학관과 부속건물을 연결하는 동선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Holl은 언덕에 앉혀져서 골짜기를 바라보는 캠퍼스 내 다른 건물의 펼쳐레스크한 배치를 따르고 있으며, 대중문화의 진부함에 대한 저항의 결과로 추구한 새 건물의 수공예적 디테일 처리에 의해 이전 건물에 적용된 근대 초기의 윤리적인 공예와 조화를 이루내고 있다.

▶Van Berkel & Bos의 암스테르담 근교 주택



Van Berkel & Bos의 암스테르담 근교 주택

Van Berkel & Bos는 각이진 뫼비우스 띠 형태의 이 주택에서 무한성을 이루내고 있는데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순환 동선은 층간 구분을 제거하며, 이것은 연

결된 공간, 형태, 시간의 연속체를 만들어낸다. 모든 방은 순환동선에 따라 위치하고 있으며, 자고, 일하고, 생활하는 24시간 주기를 이룬다. 뒤집어진 형태와 동선이 특징인 이 뫼비우스 띠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공간의 연속을 만들어내었다. 아늑함과 웅장함, 따뜻함과 차가움, 추상과 촉각, 폐쇄와 개방이 교대로 느껴지는 공간들의 연속은 시간성에 의거해서, 경험을 통해 집이 이해되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Lindy Roy의 Botswana, Okavango 강 Delta 온천

Okavango강은 Kalahari 사막에 다다르면서, 단층에 의해 강은 좁은 수로로 갈라지게 되는데, Roy는 Delta의 이러한 독특한 환경에 착안하여 온천 휴양지로 만들었다. 이 곳은 7개의 독립적인 시설물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수면 밑의 Pylon에 의해 지지되어서 강에 떠있는 듯이 보인다. 이용객은 떠있는 시설물 위에서 온천을 즐기며, 주위 아프리카 원시림의 열록말, 사자, 치타 등을 볼 수 있다. 이 밖에 ▶구매객의 동선과 움직임에 의해 형태가 결정된 슈퍼마켓, Wood and Zapata의 플로리다 Public on the Bay ▶Lubowicki/Lanier Architects의 LA 서부, 게스트 하우스 ▶이집트를 모티브로 삼은 Hodgetts+Fung의 헐리우드 American Cinematheque 등이 소개되었다.

■ 기타

▶수영장의 문화적, 사회적, 건축적 영향을 고찰한 Thomas A. P. Van Leeuwen의 수영장에 대한 역사, <The Springboard in the Pond> 리뷰 ▶최근의 아시아 경제 위기로도 불구하고, 지진 다발지역인 동경 대신에 새로운 수도 건설에 대한 건축 각계의 반응▶Perkins Eastman의 뉴욕 자연사박물관, 나비 온실의 설비 및 구조 등을 다루었으며 ▶Frank Lloyd Wright의 아들인 Eric Lloyd Wright의 건축이 최근 책으로 출간됨을 기해서 그의 건축을 재조명하였다.

1999년 3월

이번호는 네덜란드 건축가 특집의 두 번째 기획으로 렘 콜하스와 벤 반 베르켈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렘 콜하스(OMA)의 최근작과 프로젝트 6점, 벤 반 베르켈(UN-Studio)의 최근작 4점이 소개되었다. 이들 작품에 대한 에세이는 자크 뤼캉, 마이클 스피스, 바트 룯츠마가 집필했다. 연재물로는 '시(時)의 시점 제2회: 안토닌 레이몬드와 일본의 주택건축'이 게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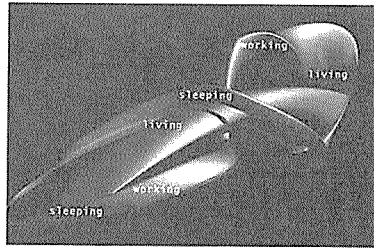


■ 렘 콜하스와 벤 반 베르켈



콜하스의 네덜란드 대사관

매너리즘화한 생산물로 넘쳐나는 한편 건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렘 콜하스와 벤 반 베르켈은 그들의 명석한 비전으로 한줄기 빛을 내뿜고 있는 것 같다. 전자는 도시의 힘을 끌어들이며, 후자는 최신의 테크놀러지를 이용한다. 그들의 전략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더욱 명쾌하게 읽혀지는 한편 주택이 건축의 상태를 측정하는 총실한 바로미터(Barometer)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보르도의 주택은 예를 들어 수평연속창, 필로티, 혹은 '자유로운 상자(Free Box)'에 새로운 해석을



베르켈의 뫼비우스 컨셉 드로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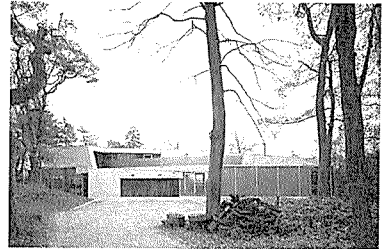
고려하고 있어, 근대건축의 근원에 대한 재고를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주택은 엘리베이터에 의해 주택의 물리적 공간의 리얼리티가 변화해 가는 것을 통하여 생성되는 새로운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뫼비우스 하우스는 2개의 차원을 하나의 연속된 표면으로 접어내는 것이 가능한 뫼비우스의 띠에 기인하고 있다. 이 프로세스에 의해 공간과 시간, 프로그램과 표면을 비틀면서 이 주택의 변증법적인 프로그램을 펼쳐나가고 있다. UN-Studio가 새로운 체재를 갖추고, 새로운 미디어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을 때에 OMA는 이제껏 해오던 바대로 도식의 명쾌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가능성을 이용하며 세계적인 활동을 계속해가고 있다. 우리들은 렘 콜하스의 뒤를 따르며, 자크 뤼캉이 지적하는 바처럼 그와 함께 그의 도망갈 수 없는 로직의 포로가 되어버려야 하는 것일까. 혹은 마이클 스피스가 논하는 것처럼 그는 중세적 사고를 넘어보면서 '현대도시 생활의 니치(Niche)를 만들어가는' 것일까. 벤 반 베르켈은 형태로 다이어그램을 위장하고 있는 것일까. 혹은 그는 거대한 '단일화된 네트워크(United Network)' 속에서 건축을 개방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걸출한 두명의 건축가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이들 문제에 대해 답하려 하고 있다.

■ 작품과 에세이

렘 콜하스의 작품으로는 보르도의 주택, 네덜란드 대사관/人知學센터, 일리노이 공과대학 학생센터 설계경기 프로젝트, 취리히 국제공항 확장계획, 스키폴 공항 프로젝트, 스카이스크래퍼 스테디 등이며, 벤 반 베르켈의 작품으로는 뫼비우스 하우스, 빌라 윌브링크, 베네치아 건

축대학 산 바질리오 냉동창고제구 신동(新棟), 그라츠의 뮤직 시어터 등이 소개되었다.

에세이로는 렘 콜하스의 작품세계에 대하여 자크 뤼캉의 「건축의 자발적인 포로들」, 마이클 스피스의 「OMA의 특이성」이 게재되었으며 벤 반 베르켈의 작품세계에 대해서는 바트 룯츠마의 글 「의상을 통합한 다이어그램」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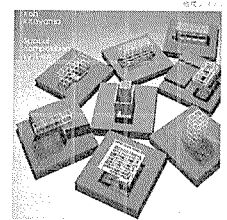
베르켈의 뫼비우스

建築文化

1999년 3월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키타야마 코의 작품세계를 다루었다. '공간의 구성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그의 1993년

建築文化



부터 1999년까지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주택, 여관, 공장, 소학교에 이르는 건축물을 권력의 논리에 지배당하지 않는 형태의 탐험을 통해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설명해 가고 있다.

■ 키타야마 코의 공간 구성 시스템

먼저 그의 공간 구성의 실험에 대한 테마에 대해 알아보자. 그의 공간실험은 단순히 조형적인 논리에 의한 형태의 유희의

차원을 넘어선다. 현대의 건축은 형태를 고안하여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거의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건축의 형태가 꼭 어떠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형태 자체에 유일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형태는 어떠한 근거도 갖지 않게 되고, 형태를 사용하는 건축의 근거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형태의 존재증명(存在證明)은 건축의 존재증명과는 같은 것이 되어 건축의 근거를 움직이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

모더니즘에서는 '기능'이라는 말이 그 근거를 이루고 있다. 그 이전까지 건축은 왕권이나 종교권위가 표상하는 실체적 미디어로 존재해 왔다. 근대에 있어서 '인간의 동작'이라는 주변에 자리잡고 있던 문제를 '기능'이라는 말로 유출하여 건축의 존재형태를 인간과 공간을 관계짓는 시스템으로 재편했다는 것은 20세기 우리가 획득한 커다란 변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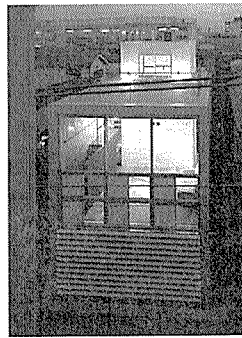
여기서 '기능'이라는 것이 '효율'이라는 말로 변환되면서 자본의 논리에 휘말리게 되어 의사결정부재의 오토마티즘(Automatism)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 오토마티즘에 대항하여 건축 형태의 고유성을 회복하려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도일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논리에 휘말리는 것은 과거 건축이 왕권이나 종교권위에 종속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의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힘의 논리(권력, 제도, 정치 등의 기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의 논리)에 대항하여 인간의 감정이나 신체의 감상에 그 뿌리를 둔 입장에서 형태를 탐구하자는 것이 그의 테마이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기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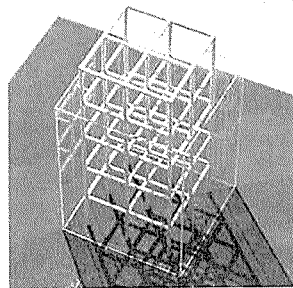
■ 작품

그의 형태 실험은 주택에서 활발하다. '도식으로서의 주거'라는 주제로 F3 House, House in House, Lime House, 伊豆의 나인스퀘어 등 4개의 주택작품이 소개되었다. 또한 '소재와 부품이라는 제도'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소재와 부품의 규격이라는 제도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그의 시도들을 '어디에나 있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라는 주제로 浦島여관,

Cranes Factory 두 개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환경을 접하는 신체'라는 문제제기를 '환경에 개방되는 건축'이라는 주제로 S-House, Z-House, Plane House, Omni Quarter 등의 4개의 주거 건축이 소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공공의 공간에서 집합과 선택의 문제를 다룬 '집합의 시스템 / 참가의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白石시립초등학교와 白石市の 집합주택, Commom Wall 등 3개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House in House



Plane House



나인 스퀘어

99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후원금 입금 현황

(단위: 원 '99. 4. 7 현재)

입금일	입금액	입금자
'99. 3. 3	1,000,000	이종찬(원양건축)
'99. 3. 5	1,000,000	최광수(범한건축)
'99. 3. 10	3,000,000	황일민(집행부위원장)
'99. 3. 15	2,000,000	(주)신화ENG종합건축
'99. 3. 17	5,000,000	천일건축(한규봉 재정위원장)
'99. 3. 18	1,000,000	최재민((주)신화ENG종합건축)
'99. 3. 19	1,000,000	이상건축
'99. 3. 20	300,000	강남건축
'99. 3. 25	200,000	정시준
'99. 3. 25	3,000,000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
'99. 4. 1	1,000,000	동우건축(강철구 소장)
'99. 4. 2	1,000,000	창조종합건축(조재원 사장)
'99. 4. 6	10,000,000	희림건축(이영희 조직위원)
계	29,500,000	13개처

정정합니다

개정건축법(지난호 pp. 118~119)중 '공포후 3개월이 지난날(99. 5. 9.)부터 시행되는 사항 중 신고대상건축물의 확대(제9조)'를 '공포한 날(99. 2. 8.)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 정정합니다.